

전남도 공직 기강 확립 '헛구호'

축산업 허가제 도입·농정자금 연리 1%로

수산과학원 직원 연구비 착복 등 비리 잇따라 연대책임제 失效... 청렴도 4위→15위 추락

전남도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급자 연대책임제' 등 강도높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비롯하여 하향 공무원 비리 사건이 꼬리를 몰고 터져 나오는가 하면, 자체 감사 기능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무원 비리 잇따라=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감태 양식 기술이전을 대가로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연구활동비 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 6급 공무원 김도(43)씨와 전직 공무원 한도(54·5급)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겨울철 전복 먹이감인 감태 연구가 2008년 성공하자 양식업자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 대가로 판매 대금의 30%를 챙긴 혐의다. 김씨는 그동안 1800여만원, H씨는 2100

여만원을 챙겼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어업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 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의 경우 지난 7월에도 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수산사업 연구비 등으로 6000만원을 빼돌려 유 흥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장흥지소 공무원이 구속돼 상급자인 해당 사업 소장이 직위해제되고 당시 해양수산 과학원장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전남도에서도 지난 5월 6급 공무원 이 사방택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하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도 직원 인사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전남

도는 지난해 11월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 부패 행위 목인·방조도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난 3월 급료·향응 수수 비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급료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사 법기관에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 직 속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차상 급자의 경우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 행하는 연대책임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인 셈이다.

이 때문인지 공직사회 청렴도도 크게 하락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종합청렴도(8.98점) 4위에 올랐지만 2010년 8.38점에 머물러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락한 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8.32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로 추락했다.

특히 올해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9위(8.57점)

에서 14위(8.45점)로 '급락',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부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도 8.06점(13위)으로 지난해(7.84점·13위)와 비슷했다. "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기가 공직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급료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사 법기관에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 직 속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차상 급자의 경우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 행하는 연대책임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인 셈이다.

이 때문인지 공직사회 청렴도도 크게 하락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종합청렴도(8.98점) 4위에 올랐지만 2010년 8.38점에 머물러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락한 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8.32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로 추락했다.

특히 올해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9위(8.57점)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1%로 인하되는 등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정시책들이 새해부터 많이 바뀐다.

전남도는 15일 농정·친환경농업·식품유통·축산 등 4개분야 33개 농정 시책이 새해부터 일부 또는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정분야=내년부터 농촌평균인구를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원, 기간은 45일까지로 상향 지원한다.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또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융합자금'도 연 3% 대출이율을 연 1%로 할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거 치기간 최대 3년간의 2% 이자 차액

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분야=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과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농에 대해서는 새 개우림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지만 다년생·수급불안 품목(대과,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도내 전 지역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식품유통 분야=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1인 1식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품목을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납작, 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로 확대한다.

◇녹색축산 분야=축산화재 발생 시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제를 새로 도입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서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운태 "내년엔 청렴도 1위 달성"

비리 공직자 퇴출 '원아웃제' 실시

강운태 광주시장은 "내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1위 달성을 목표로 산하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광주시가 201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데 대해 시청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시하고,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1위를 하자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비리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비리를 일으킨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아웃제를 실시할 것을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또, 회계와 계약, 인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시민단체 그



리고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 5개 분야의 내부 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36점을, 소방시설 점검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외부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73점을 기록,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56점을 받아 16개 시·도 중 경기, 전북, 대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홍영익기자 redplane@kwangju.co.kr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30대 남자 캐나다로 호주·독일에도 신청자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징검다리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특히 IRB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한국 군대 내의 학대 사례와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IRB는 국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

사태 중 60% 상당은 자살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직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직 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결정은 캐나다의 정부기관이 우리 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미 작년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독일 정부에, 올해도 또 다른 동성애자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1만5000명에 달하고 작년말 기준으로는 965명이 수감 상태였다.

/연남뉴스



현화하는 인철수 원장

인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인사에서 현화하고 있다. 안 원장의 이날 조문은 지난 1일 강병출미살과 신당창당설을 부인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관심을 끌었다.

/연남뉴스

인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인사에서 현화하고 있다. 안 원장의 이날 조문은 지난 1일 강병출미살과 신당창당설을 부인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관심을 끌었다.

/연남뉴스

고 박태준 명예회장 서울 국립현충원에 잠든다

안철수 "별세 소식에 큰 슬픔"

지난 13일 별세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지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장례위원회는 15일 "고인의 장지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사회유공자 묘역으로 결정됐다"며 "17일 오전 9시 30분 국립현충원에서 영결식을 한 뒤 묘역에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17일 오전 7시 발인 예배를 하고 7시30분 빈소를 떠나 고인이 생전에 머물던 청운동 자택과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들린 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영결식을 엄수한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는 사흘째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외에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 포함 본사와 광

양 등 총 7곳에 분향소를 마련해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서울 포스코센터 420여 명, 신촌 세브란스 1500여 명, 포함 8000여명, 광양 2500여명 등 총 1만2000여명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았다.

한편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4일 저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포스코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의미 있는 기업으로, 그 초석을 닦은 분이 박태준 명예회장"이라며 "별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가발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2년 1월 9일(월) ~ 2월 14일(화)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23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목)
 - ※ 수강료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부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